

미술사 저술(著述)의 몇 가지 근본문제

안 휘 준*

- I. 머리말
- II. 표질의 문제
- III. 개설서 저술의 문제
- IV. 주(註) 달기의 문제
- V. 맺음말: 후배들을 위한 충언(忠言)

I. 머리말

우리나라에서 미술사학이 최근 30여 년 동안 장족의 발전을 이루어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미술사 분야의 학문인구와 전공학생의 대폭적인 증가, 연구자들의 활발한 연구와 괄목할 만한 성과, 연구의 다양화와 심층화, 각종 전공 서적의 줄이은 출간, 학회와 발표회의 활성화, 여러 가지 전시회의 빈번한 개최, 일반인들의 관심 증대 등 등이 그 단적인 증거들이다.

이처럼 긍정적인 양상들과 함께 어두운 먹구름이 다른 한편에서 끼고 있음이 엿보이고

* 명지대학교 인문대학 미술사학과 석좌교수,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고고미술사학과 명예교수

있어서 뜻있는 학자들의 가슴을 무겁게 하고 있다. 그것은, 학문의 엄정성을 경시하고 다른 학자들의 업적을 표절하거나 정당하게 인용하지 않는 일부 학자들의 안이하고 부당한 행위에서 비롯되고 있다. 비록 학계의 일각에서 빚어지고 있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그 악영향의 급속한 파급이 우려되고 있어서 나이 든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경계의 고언을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금은 우리나라 미술사 교육을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은 이른바 466세대(1940년대에 출생하고 1960년대에 대학을 다녔으며 나이가 60대인 세대)가 교육 현역에서 완전히 물러나고 그들이 가르친 제자들이 바통을 이어받음으로써 세대교체가 막 완벽하게 이루어진 일종의 전환기여서, 새로운 발전과 도약이 기대됨과 동시에 학풍에 일시적으로나마 이완(弛緩) 현상이 생길 수도 있어 경계를 요하는 때이기도 하다. 이 시기를 잘 넘기면 우리 학계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혼란한 소강상태를 면치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학계의 젊은 학자들이나 전공 학생들 대부분은 다른 어느 분야의 경우보다도 성실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학계의 밝은 미래를 담보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이다. 필자와 우리 동료들은 이를 대단히 높이 평가하면서 진심으로 흐뭇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일부 젊은 학자들은, 느긋하고 착실하게 자신의 학문을 키우고 다지기보다는 입신양명이나 성공을 너무 서두르고 현실과 쉽게 타협하는 경향을 드러낸다. 이들은 표절, 짜깁기, 남의 업적 목살하기 등도 서슴지 않음으로써 학계를 어지럽히고 성실한 대다수 동료들에게 좌절감을 야기시키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우리 학계의 상황을 출판물을 중심으로 하여 대강이나마 점검해보고 반성함으로써 앞으로의 보다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 설정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관련자들을 배려하여 책들의 제목이나 저자들의 성명은 밝히지 않고자 한다.

이 줄문이 대다수의 성실한 후배들에게는 격려가 되고 소수의 불성실한 후배들에게는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경종이 되었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우리 학계의 건전한 발전과 엄정한 학문 풍토의 확립에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II. 표절의 문제

우리 미술사학계의 장래와 관련하여 필자나 필자의 동료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은 요즘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표절의 문제이다. 표절(剽竊)이란 “타인(他人)의 시가(詩歌)·문장 등의 설(說), 또는 글귀를 가져다가 자기의 것으로 발표하는 일”(이희승 편, 『국어대사전』 22판, 민중서관, 1974, p.3063)을 일컬으며, “글도둑, 글 훔치기, 초습(剽襲), 표적(票賊)”(신기철·신용철 편, 『새 우리말 큰사전』 제15판 하권, 삼성출판사, 1989, p.3564)이라고 불리어지기도 한다. 영어로는 plagiarism 또는 piracy라고 한다. 그런데 이 표절의 문제가 다른 학문 분야들만이 아니라 우리 미술사학계에도 이미 마수를 뻗쳐왔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이 글을 쓰게 된 가장 큰 동기도 이 표절의 심각성 때문임을 부인할 수 없다.

필자 자신이 겪은 표절의 피해도 적지 않다. 어느 지방대학의 출판부에서는 필자의 책을 토씨 하나도 바꾸지 않은 채 제목만 바꾸어 낸 적이 있고, 강의 내용을 녹음하여 풀어 쓴 듯한 책을 내기도 하였으며, 필자의 몇 가지 책들을 짜깁기하여 문장만 바꾸어 낸 경우도 있다. 단편적으로 이곳저곳에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표절당하는 경우는 부지기수이다.

표절의 피해가 매우 심각하고, 피해자의 속이 몹시 상하며, 학계의 장래와 관련하여 염려스럽기 그지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저지른 표절자들의 장래와 입지가 걱정되어 이들을 처벌하거나 처벌받게 할 수가 없다. ‘일벌백계(一罰百戒)’나 ‘음참마속(泣斬馬謖)’이니 하는 단어들도 머릿속을 맴돌며 괴롭혀도 참아내고, 자기들에게 법적인 처리를 맡기라는 저작권협회의 권유도 대부분 뿌리칠 수밖에 없다. 옛날에는 없던 현대 학자의 새로운 고민거리라는 생각이 든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선생이 제자들의 논문을 자기의 것으로 활용하는 표절이 대부분인데 아직 미개척 분야에 해당하는 미술사분야에서는 필자의 경우에서 보듯이 선생의 업적이 제자나 후배들에게 표절당하는 추세여서 상반된 현상을 드러낸다.

대개 ‘표절’은 문장까지 똑같이 도용해야만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학자의 아이디어나 학술적 업적을 표절자 자신의 문장으로 바꾸어 놓으면 상관인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전자가 ‘순진한 표절’이라면 후자는 남의 학설이나 아이디어를 포장하여 도용하는 ‘교활한 표절’이라고 볼 수 있다. 죄의 질로 따지자면 ‘순진한 표절’보다 ‘교활한 표절’이 훨씬 질이 나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교활한 표절’에는 범죄행위의 은폐 의도까지 곁들여져 있고 사기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순

진한 표절'보다 '교활한 표절'이 훨씬 죄질이 무겁고 나쁘다고 생각한다.

표절 중에는 질이 나쁜 계획적인 표절이 아닌 경우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남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학설을 차용하고도 그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면 결과적으로 표절임을 면할 수 없다. 그것이 표절이 아니면 무엇이 표절일 수 있겠는가? 비록 순수한 마음으로 저질러진 일이라 해도 결과가 표절이면 표절인 것이다. 즉 계획적인 악의적 표절이나 악의 없는 비계획적 표절이나 표절이기는 마찬가지인 것이다. 학문적 엄정성을 어떤 경우에는 철저히 지켜야 하는 이유가 그 점에 있다.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도 남의 것은 소유자의 허락이나 양해 없이 내가 함부로 차지할 수 없듯이 남의 학설이나 아이디어도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마치 내 것인 양 활용할 수는 없다. 이는 부자지간이든 사제지간이든 마찬가지로 양해될 수 없는 사항이다. 학문적인 글은 다른 학자가 편리한 대로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자기 것처럼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본질적으로 글은 상당 시간 정신을 모아야 쓸 수 있는 것이고 표절도 일종의 글쓰기의 결과이므로 순간적으로 저질러지는 우발적 과오일 수가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표절은 어떤 이유론든 절대로 착한 행위로 간주될 수 없다.

표절은 절도죄나 사기와 유사한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표절 행위는 대부분의 경우 ① 불성실과 무책임, ② 몰염치, ③ 자존심 결여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열심히 공부하는 성실한 학자, 제자를 올바르게 가르치고 길러내는 책임감 넘치는 교수, 염치를 알고 사리에 밝으며 자존심이 강한 연구자는 절대로 저지르지 않는 파렴치한 행위가 바로 표절인 것이다. 그런데도 관련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심각하고 잘못된 것인지를 절감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실로 개탄스럽고 염려스러운 일이다.

표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① 연구자 각자의 학문적 엄격성 준수, ② 미술사교육의 엄정화, ③ 서평의 활성화, ④ 학회 산하에 '연구업적 검증위원회(가칭)' 설치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①의 경우는 너무도 지당한 일이어서 굳이 첨언을 요하지 않는다. ②는 미술사 연습이나 기타 세미나 코스 등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표절에 대한 경각심 고양, 기존의 업적에 대한 철저한 섭렵과 인용, 주(註) 다는 방법 등을 교육시킴으로써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③에 대해서는 기성학자들의 책임이 크을 부인할 수 없다. 새로운 책이 나와도 아무도 서평을 쓰지 않는 것이 우리 미술사학계의 풍토이다. 심지어 표절과 짜깁기 등 문제투성이의 책들이 버젓이 나와서 행세해도 뒤에서 속덕거리기만 할 뿐 아무도 서평을 써서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다. 모두들 패기도 정의감도 없는 듯하다. 싫은 소리를 하기 싫어하는

경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서평이 반드시 꼬집고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단점, 좋은 점과 개선을 요하는 점을 공평하게 지적함으로써 저자와 학계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권장할 일이라 하겠다. 서평자의 부당한 지적에 대해서는 저자가 다시 반론을 제기하면 된다. 이러한 사례는 이성미 교수와 필자 사이에 이미 이루어진 바 있다. 즉 필자의 줄저인 『韓國繪畫의 傳統』(문예출판사, 1988)에 대하여 이성미 교수가 쓴 서평(『考古美術』 제181호, 1989. 3)에 대한 답론을 필자가 다시 쓴 바 있다(『考古美術』 제182호, 1989. 6). 이것이 하나의 좋은 선례가 되기를 바랐으나 그러한 사례는 다시는 눈에 띄지 않는다.

이처럼 우리 미술사학계에서의 서평은 가장 침잠된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해이한 학풍의 조성과 표절의 가능성을 넓혀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엄정한 서평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면 어찌 감히 표절이나 허술한 책들이 활개치고 행세할 수 있겠는가.

좋은 서평은 논문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조처도 서평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진다. 표절의 방지와 학계의 발전을 위해 서평의 활성화는 너무도 절실한 우리 모두의 과제인 것이다.

④의 '연구업적 검증위원회'의 설치도 표절 여부를 가리고 상훈 대상을 선별하기 위해 서라도 고려해볼 만한 일이라 생각한다. 서평상(書評賞)의 제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믿어진다.

표절이 근절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성실한 연구자들 모두에게 미칠 것이며, 학계의 질서가 어지러워지고 발전이 저해받게 될 것이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악폐가 생겨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미술사학계의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III. 개설서 저술의 문제

우리나라의 미술사학계에는 최근 연구가 활성화되고 심층화되면서 우수한 전공 논문들과 저서들이 대거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실로 기쁘기 그지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개설서에 관해서만은 역설적이게도 몇 가지 잘못된 인식이 자리를 잡고 있음이 간취된다. 그것들을 대강 정리해보면 대체로 ① 개설서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개설'이기 때문에 초보자나 일반인을 위한 것으로 학문적으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② 개설서는 고도의 전

문성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미술사 공부를 웬만큼 한 사람이면 아무나 대충 쓸 수 있을 것이다. ③ 개설서는 전문적인 학술서적이 아니므로 굳이 번거롭게 주(註)를 달 필요가 없다 등의 오해이다. 이러한 오해가 제법 널리 퍼져 있다. 이 세 가지 오해야말로 위험천만하고 우리 학계의 장래를 위협하는 요인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오해들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개설서가 과연 학문적으로 대수롭지 않은가? 정답은 절대로 그렇지 않으며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이다.

어느 학문분야에서든 가장 중요한 책은 알찬 개설서와 사전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개설서는 가장 초보적이고 종합적이며 그 학문에 관한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총화여서 그 학문에 입문하는 사람들에게는 종합적인 입문서(入門書)이자 지침서(指針書)이며 참고서이기도 하다. 또한 그 분야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에게는 초보적인 소개서이자 교양서의 역할도 한다. 따라서 제일 널리 읽히는 책이기도 하다. 초심의 전공자든 일반 교양인이든 개설서를 읽고 그 분야에 관한 포괄적인 이해를 나름대로 하게 마련이다. 그것은 학문 발전의 초석인 것이다. 좋은 개설서의 유무가 그 분야의 발전을 좌우한다. 이처럼 개설서의 영향은 지대하다. 그러므로 개설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오히려 부족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근년에 이르러 우리나라에서 각종 미술사 개설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환영해야 마땅할 일이지만 문제는 그럴 수만 없다는 데에 있다.

최근에 나온 미술사 개설서들을 보면 분야별로는 한국미술사, 동양미술사, 서양미술사 등의 종합 개설서로부터 좀 더 세분화된 분야나 시대의 개설서 등 다양하고, 저자들도 원로, 중진, 소장 층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대상으로 삼는 독자층도 전공 학생들, 일반 성인 독자들, 청소년들, 어린이들, 미술교사들 등 다기화되어 있다.

그런데 이 개설서들 상당수는 내용, 형식, 수준의 면에서 문제가 있고 지식체계나 서술 체계에 심각한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어서 염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서술체계에서는 더욱 걱정이 앞선다.

본래 개설서는 그 분야에서 다수의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주요 업적들을 두루 섭렵하고 학설과 주장들을 올바르게 소개하면서 저자(들) 자신의 의견과 해석을 곁들여서 쓰여지게 마련이다. 관련되는 문헌자료와 작품자료도 광범하고 선별적으로 인용되고 서술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어느 저자도 자신만의 연구 업적과 이론이나 의견만으로 개설서를 쓸 수는 없다. 이는 아무리 나이가 많고 학문적 연구 경력이 풍부한 저자라 해도 마찬가지이다. 많은 다른 학자들의 업적(저술)을 참고하지 않고는 알차고 풍요로운 개설서를 쓸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자(들)는 자신(들)이 참고한 학계의 업적, 즉 다른 학자들의 저술이나 관련되는 전거(典據)를 밝혀야 마땅하다. 이것이, 제대로 된 학자가 지키고 따라야 할 정도(正道)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많은 다른 학자들의 업적을 본의든 아니든 도용하는 결과가 되고 표절의 의혹을 면하기 어렵게 된다. 이는 학문적으로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처지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 전거를 밝혀야 하고, 그 가장 간편하고 편리한 방법이 주(註)를 다는 것이다. 그런데 근년에 나온 개설서들 상당수가 주를 달지 않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일부 저자들과 출판사 사장들은 개론서는 개론서이기 때문에 주를 달지 않아도 되며 책의 뒤편에 참고문헌 목록을 신는 것으로 족하다고 강변하나 이는 그야말로 어불성설(語不成就)이다. 특정 학자의 특정한 학설이나 주장이 주(註)가 아닌 참고문헌 목록만으로 어떻게 밝혀지고 그때그때 독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전달될 수가 있겠는가. 참고문헌 목록만으로 족하다면 주가 왜 생겼으며 왜 필요하겠는가. 주를 달지 않는 것은 양질의 학술 서비스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학문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나 올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괴변 같은 변명은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주는 개설서의 경우에도 반드시 달아야 된다고 본다. 주를 다는 방법으로 본문 밑에 다는 각주(脚註)가 이런저런 이유로 꺼려진다면 책의 뒤편이나 각 장의 끝에 몰아서 다는 미주(尾註)를 달면 될 것이다. 이 밖에 주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 장에서 하고자 한다.

다만 두 가지만 이곳에서 강조해두고 싶다. 그 중 한 가지는 주를 달아서 전거를 밝혀야 할 책무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전혀 예외나 차등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이다. 나이가 많고 연구 경력이 풍부한 원로학자나 대학원을 갓 졸업한 소장학자나 똑같은 학문적 책무를 지닌다. 누구도 학문적 엄정성을 경시할 수 없다. 모두가 동등하다. 다른 한 가지는, 학술출판을 선택해야 할 학자로서의 저자들이 주(註) 달기를 회피하는 출판사들의 요구에 무기력하게 굴복하고 끌려 다니는 나약함에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저자들은 주를 다는 문제를 포함하여 학문적 엄정성을 지키는 일에 소신을 굽히지 말아야 하며 그것을 위해 출판사를 설득하고 이해시켜야만 한다. 합의가 안 되면 원고를 주지 말고 학문의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다른 출판사에 출판의 기회를 넘겨야 할 것이다. 일확천금 하는 일도 아니고 팔자를 고치는 일도 아닌, 약간의 인세나 원고료가 생기는 것이 고작인 일에 학문적 소신을 쉽게 굽힌다면 그게 어찌 당연한 학자가 할 일이겠는가. 학문에 대한 겸허한 마음, 당연한 금지와

기개, 굳은 의지, 반듯한 소신, 단호한 결단, 다른 학자들의 훌륭한 업적에 대한 공정한 인정과 존중심 등을 저자들이 가져 주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좋은 개설서를 자신의 뜻에 합치되게 내고 학계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 독자들도 주를 통하여 엄정한 학문의 세계를 다소나마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또한 큰 소득이 아닐 수 없다.

개설서와 관련하여 앞에서 얘기한 주를 중심으로 한 서술체제 이외에 또 한 가지 언급을 요하는 것은 저자들에 관한 문제이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개설서는 쓰기 쉬운 것이며 따라서 그 분야를 전공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비교적 쉽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이는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하였듯이 좋은 개설서를 쓰려면 그 해당 분야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업적을 섭렵하고 소화하여 지식체계가 제대로 서 있어야만 한다. 신출(新出)의 문헌자료와 작품사료를 포함하여 모든 자료들에 대해서도 꿰뚫고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미술사의 경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자가 문화와 역사에 대한 뚜렷한 견해나 주관을 오랜 연구를 통해 확고하게 지니고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일종의 사관(史觀)이나 문화관(文化觀)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편견이나 독선이 아니다. 엄정하고 객관적이면 서도 타당해야만 한다. 왜 특정한 개설서를 쓰려 하는지, 어떻게 쓰려 하는지, 그 개설서를 통하여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뚜렷하고 체계적인 견해가 서 있지 않으면 좋은 개설서를 쓰기 어렵다.

이런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키려면 저자는 뛰어난 지적 능력과 무거운 성실성, 철저하고 탄탄한 학문적 훈련, 장기간에 걸친 풍부한 연구경력, 괄목할 만한 학문적 업적의 충분한 축적, 자료들에 대한 남다른 분석과 이해 등을 고루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학문적으로 원숙하고 뛰어난 학자가 개설서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문적으로 아직 미숙한 젊은 학자가 쓰기에는 개설서는 너무 버거운 것이다. 이러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젊은 학자들이 겁없이 개설서의 집필에 뛰어들고 있다. 심지어 스승의 강의 내용을 짜깁기 식으로 정리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책을 내는 파렴치한 젊은이들도 있다. 마땅히 경계할 일이다. 개설서의 저술과 개론 과목의 강의는 학문적 업적이 뛰어나고 연구 경력이 풍부한 나이 지긋한 대표적 학자들이 맡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본다.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필자의 『韓國繪畫史』(一志社)와 문명대 교수의 『韓國彫刻史』(悅話堂) 등의 분야별 개설서들이 모두 저자들이 40세였던 1980년에 앞서거나 뒤서거나 나왔던 것은 그 대표적 예이다. 이 책들의 집필이 모두 저자들의 나이가 30대 말인 때에 이루어졌던 것인데 당시에는 한국미술사의 분야별 개설서들이 거의 없었고 또 미술사

교육의 정착을 위해서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었다. 즉 당시의 시대상황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미술사학이 장족의 발전을 이룬 현재는 상황이 현저하게 달라졌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이제는 젊은 소장학자들이 허술한 개설서를 내는 데 말려들기보다는 장래에 더욱 알차고 참신한 개설서를 낼 수 있도록 학문에 정진하고 좋은 논문을 써서 자신을 훌륭한 학자로 키워가는 데 진력할 때라고 본다.

그리고 참고삼아 얘기한다면 앞에 언급한 분야별 개설서들은 물론 고(故) 김원용 선생과 필자가 공저한 『新版 韓國美術史』(서울대학교출판부, 1993)와 그것의 개정 증보판인 『한국미술의 역사』(시공사, 2003)는 모두 철저하게 주를 달았다. 주 없는 개설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이는 Penguin Books(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5개국에 지사가 있음)가 The Pelican History of Art라는 시리즈의 일부로 펴낸 고전적인 동양미술사 개설서들인 Laurence Sickman과 Alexander Soper의 공저인 The Art and Architecture of China (1956 초판 발행), Robert T. Paine과 Alexander Soper의 The Art and Architecture of Japan (1955 초판 발행), Benjamin Rowland의 The Art and Architecture of India (1956 초판 발행) 등의 경우에서도 잘 드러난다. 요즘 가장 널리 읽히는 중국미술사 개설서로는 Michael Sullivan의 The Arts of Chin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7)를 꼽을 수 있는데 이 책에도 간명하나마 주가 미주로 달려 있다. 이 외국 책들에서도 보듯이 훌륭한 학자들에 의해 쓰여진 좋은 모범적 개설서들은 반드시 주를 달았음을 알 수 있다.

개설서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첨언하고 싶은 것은 새로 나오는 개설서는 반드시 앞서 나온 개설서에 비하여 학문적으로 더 충실하고 훌륭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내용과 체제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고 참신해야만 한다. 최근의 학문적 업적들과 신출의 중요한 자료들이 철저하게 반영되어 기존의 개설서들이 빛을 잃게 하는 결과를 낼 수 있어야만 한다. 새로운 내용과 학설들로 신간의 개설서들은 채워져 있어야만 한다. 학문적 수준도 훨씬 더 높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짜퉁' 같은 구태의연한 개설서는 새로 나와야 할 당위성이 없다. 주(註)조차 달지 않아 어떤 학자들이 어떤 학설과 연구업적을 새롭게 내어 놓았는지, 그간의 학계 동향은 어떠했는지, 어떠한 자료들이 새롭게 발견되고 다루어졌는지 등등을 새로 나온 개설서들에서 파악할 수 없다면 그 개설서의 저자들은 학문적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한 저자들은 의도했든 안 했든 학계를 알보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말로 새롭고 학계에 기여하는 개설서를 내야 할 책무를 저자들은 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실현하기 어려운 저자들은 개설서를 내는 것을 삼가야만 한다. 주를 달 여력도 없고 의지도 박약하다면 굳이 허술한 개설서를 내어 학계를 어지럽힐 이유가 없다. 반드시 학계의 후배들에게 두고두고 참

고가 되는 개설서만을 펴내야 한다. 그들이 반듯하고 올바른 학자들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디자인도 참신하고 책값도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허술한 개설서들의 출현을 막고 저자들의 안이한 저술 태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도 엄정한 서평의 전통은 꼭 확립되어야 한다. 이 점을 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영향력 있는 중진 이상의 학자들은 자신의 제자나 후배들을 주조차 달지 않는 허술한 개설서 저술에 동참시키는 일을 삼가야 할 것이다. 그들의 학문적 성장과 위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앞으로 새로운 학술정보와 자료로 딱 차고 학문적 격식을 제대로 갖춘 참신하고 훌륭한 수준 높은 개설서들이 많이 출현하기를 고대한다.

IV. 주(註) 달기의 문제

학술적 저술에서 주(註)를 제대로 올바르게 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다. 그런데도 근래의 개설서를 비롯한 각종 저술에서 주를 아예 달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말막음으로 불성실하게 다는 '주답지 않은 주 달기'나 엉뚱한 인명, 지명, 용어 등에는 주를 달면서 막상 꼭 소개해야 할 학문적 업적은 인용하지 않는 '교활한 주 달기'도 종종 눈에 띈다. 또한 자신이 쓰는 주제와 관련된 중요한 업적을 앞서서 낸 학자가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그 핵심의 논문은 모른 척 언급하지 않으면서 그 학자의 엉뚱한 논문들만 잔뜩 인용하는 사례도 보인다. 그리고 자기의 논문 주제에 관해서 최초로 나온 개척적 업적과 그 뒤에 나온 업적들을 간과하고 몇 단계를 거쳐 최근에 나온 동료나 동년배의 신출 논문만을 인용함으로써 본래의 개척자는 묵살되고 신출의 소장학자가 개척자인 것처럼 독자들을 오도하는 경우도 자주 눈에 띈다. 이는 학문적 회극이자 비극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젊은 연구자들은 반드시 자신이 다루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하여 기왕에 발표된 업적들에 관하여 연대별 학술사적 검토를 해야만 한다. 이처럼 주를 제대로 다는 일에 인색하거나 아예 모르는 학자들이 많이 눈에 띄는 일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주를 다는 일이 대단히 번거롭고 귀찮은 것은 사실이다. 찾아보고 확인해야 될 일도 많고 시간도 적지 않게 걸린다. 편집상의 어려움도 있고 책의 인상과 모양새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학술적 저술에서는 필수적이다. 번거롭고 어려워도 제대로 달아야 한다. 교활함이 작용해서는 안 된다. 어차피 저술은 고생스러운 일이며 그 고행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공부하는 사람의 사명이다. 게으름과 잔피와 교만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

다. 주는 본문 못지않게 집필자의 모든 것을 드러낸다.

주는 몇 가지 기능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첫째는 원전(原典)이나 전거(典據)를 밝히는 수단이고, 둘째는 자신이나 다른 연구자들의 중요한 업적을 소개하는 방법이며, 셋째는 본문의 흐름에는 방해가 되지만 독자들에게는 유익할 수 있는 견해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처럼 저서나 논문의 집필자는 주를 통하여 자신이 섭렵하고 공부한 각종 문헌과 작품을 소개하고, 다른 연구자들의 견해와 업적을 소개하거나 비판하면서 자신의 학문적 견해를 밝힐 수가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보충 설명이나 논거를 제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주가 지닌 유용성과 효율성 및 편리함은 더 없이 크다. 그래서 주만 보고도 독자는 크게는 그 학계의 중요한 업적과 자료, 주요 연구자와 그들의 학설 등을 이해함은 물론, 작게는 집필자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얼마나 공부했으며 학문적으로 얼마나 엄정한지, 그리고 독자를 위한 서비스 정신이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훈련된 학자인지의 여부 등등 다양한 측면을 파악할 수가 있다. 집필자의 분야에서는 어떤 학자들이 무슨 저술을 내어 놓았는지, 그들의 학술적 견해는 무엇인지, 집필자의 견해나 업적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본문 못지않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주인 것이다. 따라서 주가 없으면 집필자는 하고 싶은 얘기와 소개하고 싶은 업적들을 모두 효율적으로 개진할 수가 없게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공부하고 저술을 하는 학자에게 있어서 주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주는 집필자가 독자들을 위하여 베푸는 서비스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집필자는 주를 달아서 독자들에게 서비스함에 있어서 순수하고 솔직하며, 친절하고 성실하며, 겸손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오만 불손하여 꼭 인용해야 할 것을 고의적으로 빼거나, 불성실하여 아무렇게나 달거나, 교만하여 꼭 인용해야 할 것을 제쳐두고 엉뚱한 주를 달아서 독자를 현혹시키는 행위는 모두 좋은 학자가 할 일이 아니다. 그런 행위를 하는 '학자답지 않은 학자들'은 스스로의 학문을 훼손하고 학계를 어지럽히는 지극히 어리석은 자들이다. 특히 엉뚱한 주를 달아서 자신의 업적을 빛내려는 사람은, 학구적이고 전문적인 독자들의 지적 능력을 능멸하는 자라 하겠다. 이러한 '교활한 주 달기'는 더 없이 개탄스러운 최악의 행위라 하겠다. 일종의 표절행위이자 사기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만 한다. 학문은 순수한 마음에서 해야만 한다. 학문은 진리탐구와 진실규명을 위해 하는 것이며 이 세계에 교활한 마음은 금물인 것이다. 남의 업적을 제대로 평가하고 인정하며 소개할 줄 알아야 자기 자신의 업적도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학문의 기본이다. 젊은 학자들 중에는 기왕의 업적들을 제대로 소개할 경우 자신의 업적이 가려지거나 덜 평가될까 염려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정말로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기왕의 대표적 업적들을 소개

하면서 자신의 연구 성과가 기존의 것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기왕에 나온 업적들을 무조건 모두 인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내용, 수준,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인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만 인용하고 소개하면 되는 것이다. 내용이 허술하고 수준이 낮으며 별로 참고가 되지 않는 저작물들까지 번거롭게 인용하고 소개할 의무는 집필자에게 없다. 그러나 꼭 인용하고 소개해야만 할 대표적 저술을 외면하는 행위는 절대로 옳다고 볼 수 없다.

여기에서 주를 다는 요령이나 방법을 논할 입장은 아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이미 편집상의 국제적 원칙이 세워져 있고, 제대로 된 교수들 밑에서 철저하게 훈련받은 미술사 전공자들은 모두 숙지하고 있다. 이 원칙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도 집필자의 훈련 배경을 드러낸다. 어쨌든 필자가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인문과학에서 통용되고 있는 방법과 함께 사회과학에서 사용하는 주 달기의 방법도 차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편의상 필자의 2005년에 나온 일부의 글들을 예로 들어 보겠다.

- ① 安輝濬, 「韓國美術史上 中國美術의 意義」, 『中國史研究』 제35호(2005, 4), pp.1-25.
- ② 安輝濬, 「謙齋 鄭敼(1676-1759)의 瀟湘八景圖」, 『美術史論壇』 제20호(2005, 상반기), pp.7-43.

이 글들을 인용할 경우 본문 중에 필요할 때마다 주 번호를 부여하고 각주나 미주(尾註)에서는 매번 상기한 방법이나 그와 대등한 방법(安輝濬, 上揭論文, pp.○-○ / 또는 安輝濬, 前揭論文, pp.○-○)으로 밝히는 것이 우리가 글을 쓸 때 차용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사회과학에서는 같은 해에 나온 같은 필자의 글들이 여러 편 있을 경우에 출간된 순서에 따라 2005a, 2005b, 2005c 식으로 정리하여 참고문헌에 실고, 본문에서는 주 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본문의 필요한 부분에 괄호를 치고 그 안에 적어 넣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앞에 적은 필자의 글들을 사회과학에서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① 安輝濬, 2005a, 「韓國美術史上 中國美術의 意義」, 『中國史研究』 제35호, pp.1-25.
- ② 安輝濬, 2005b, 「謙齋 鄭敼(1676-1759)의 瀟湘八景圖」, 『美術史論壇』 제20호, pp.7-43.

이것들을 참고문헌 목록에 실어 놓고 ①의 글을 인용할 때는 (安輝濬, 2005a, p.○), ②의 글을 소개할 때는 (安輝濬, 2005b, pp.○-○) 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집필자는 이런 방식에 의해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고, 독자는 어떤 글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참고문헌 목록의 '안휘준' 2005년 부분을 찾아가서 확인하면 된다. 이 방식에서는 참고문헌 목록을 먼저 순서에 따라 정확하게 정리해 놓고 집필에 임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집필 중에 새로운 참고문헌들이 발견되면 참고문헌 목록을 재조정해야 하고 본문에서도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로 간편하여 단출한 저술에서는 사용해 볼만 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방대하고 다양한 저술과 문헌자료 및 시각자료를 활용하고 인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 불편하고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집필자 자신의 수상록이나 잠문모음이 아닌 학술적 성격의 저술에서는 원칙적으로 주를 적극적으로 다는 것이 독자에 대한 친절한 서비스이며 다른 학지들에 대한 사려깊은 배려임을 부인할 수 없다. 오해의 소지가 많은 저술의 경우에는 표절의 시비에 말려들지 않는 올바른 방법이기도 하다. 남의 업적을 정당하게 인용하고 저술내용을 풍부하게 하는 편리한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올바르게 정확하며 되도록 간편한 주 다는 방법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할 때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것은 나이든 학자일수록 젊은 학자들의 업적을 주시하고 인용해야 된다는 점이다. 그것은 자신의 학문을 새롭게 하고, 학계의 최근 동향을 파악하게 하며, 젊은 연구자들에게 격려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V. 맺음말: 후배들을 위한 충언(忠言)

이상 우리 미술사학계에도 드러나기 시작한 표절의 문제, 개설서 저술의 문제, 주(註) 달기의 문제와 연관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대충 짚어 보았다. 이 문제들은 일차적으로는 학계와 직결된 것들이고 이차적으로는 출판계 및 언론계와도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가장 책임이 있는 것은 결국 학계의 일부 연구자, 학자로서의 집필자들(책의 저자들과 논문의 필자들)임을 부인할 수 없다. 결국 이들이 어떤 학자, 어떤 집필자가 되느냐에 달려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된다. 특히 학문 활동이 이미 끝났거나 끝나가는 노년층의 학자들보다는 앞으로 학계에 기여할 기회가 많은 젊은 소장학자들의 튼실한 성장과 학계의 건실한 발전을 위하여 몇 가지 주제넘은 충언(忠言)을 소중한 후배들에게 하고 싶다.

필자는 이미 오래 전에 창작에 임하는 우리나라 청년작가들을 위한 충고의 발언을 한 바가 있으나(「한국 현대 청년작가들을 위한 충언」, 『新墨』 제4호, 1990.7, pp.73-79 및 줄져 『韓國의 現代美術,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2, pp.27-40), 미술사학계의 후배들을 위해서는 별도로 충고의 글을 쓴 적이 없다. 이 글이 처음이다. 이는 필자 자신에 대한 다짐이기도 한데, 그 대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부지런하고 성실하자.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이 학문의 세계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살이의 모든 면에서 요구되는 물론이다. 그러나 학문의 세계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열심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연구하는 것은 학문세계의 지고의 미덕이다. 머리가 아무리 명석해도 잠잘 것 다 자고 놀 것 다 놀고는 인문학에서는 우뚝 서는 학자가 될 수 없다.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둘째로 부지런하되 느긋하자. 젊은이들은 남보다 빨리 성공하고 싶어하는 게 상례이다. 그래서 느긋하기 어렵다. 서둘러 책도 내고 빨리 자리도 잡고 싶어한다.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느긋하게 스스로의 학문을 키우지 않고는 대성하기 어렵다. 대기만성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 좋은 예가 미국 프린스턴(Princeton) 대학의 고(故) 시마다 슈지로(島田修二郎) 교수이다. 그는 40대 후반까지도 일본에서 누구도 큰 학자가 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을 정도로 늦된 인물이었다. 느릿느릿 느긋한 자세로 공부만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후 서양의 동양미술사학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유명 학자가 되었다.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이다. “황소 걸음이 천릿길 간다”라는 옛말이 새삼 되새겨진다.

셋째로 겸허하고 진실하자. 건방지고 교만하고 교활한 마음은 자신의 인간됨은 물론 학자로서의 성장에 지장밖에 초래하는 것이 없다. 학문을 두려워하는 겸허한 마음, 진실과 진리를 탐구하는 순수한 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넷째로 엄정하고 공평하자. 사실과 사료를 독선이나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관조하는 것이 연구자에게 특히 필요하다. 억지를 부려서는 안 된다. 학문적 엄정성을 지켜야 한다.

다섯째로 안목을 높이고 식견을 넓히자. 작품사료를 꿰뚫어보는 높은 안목과 예리한 감식안(鑑識眼), 역사와 문화를 폭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광범한 식견이 미술사가에게는 특히 중요하다. 안목이 높아야 가짜를 진짜로 보거나 멀쩡한 진짜를 가짜라고 우기는 희극적이고 터무니없는 실수를 피할 수 있다. 높은 안목과 넓은 식견이 함께 갖추어져 있어야, 높은 산에 올라 세상을 넓게 보는 것처럼 역사와 문화를 올바로 볼 수가 있다. 넓게 보되 깊이 파고드는 일이 바람직하다.

여섯째로 창의력과 개척정신을 키우자. 창의성은 예술과 문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다. 창작의 성과인 미술작품을 사료로 사용하는 미술사학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임은 물론이다. 미술작품에 곁들여져 있는 창의성을 꿰뚫어 보고 이를 저술에서 창의적으로 다룰 줄 알아야 남달리 뛰어난 미술사가가 될 수 있다. 예술과 문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문의 세계에서도 창의성은 최고의 덕목이다. 그리고 남이 연구하지 않은 새로운 분야나 주제를 개척하는 일도 대단히 긴요하다.

일곱째로 긍지와 자부심을 갖자. 미술사라는 학문은 역사와 문화를 함께 다루며, 선사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별 특성과 그 변화양상, 외국과의 교류 등 다양한 복합적 현상을 남아 있는 확실한 자료(작품과 기록)에 의해 규명해 낼 수 있는 유일한 인문학이다. 이를 공부하면서 참된 미술사가들은 자연스럽게 안목과 식견을 덤으로 갖추게 된다. 이러한 점들에 대하여 겸손하면서도 당당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그러나 잘못된 교만은 금물이다. 학문적 긍지와 자부심이 강한 학자에게 표절은 끼어들 틈새가 없다.

여덟째로 동지애를 갖자. 학문인구와 전공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약간의 갈등과 분파행위가 학교별, 분야별, 세대별로 생겨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모두가 경계할 일이다. 건전한 미술사전공자라면 학교, 분야, 세대의 구별 없이 동지임을 잊지 말고 상부상조해야 하겠다.

(본고의 컴퓨터 입력과 정리에에는 근역문화연구소의 정유란 조연구원이 수고하였다.)